

가쇼도(迦葉堂: 가섭당)

본당 옆에 위치한 2층 건물 가쇼도는 호코쿠지 절에서는 두 번째로 큰 건물입니다. 위층은 응접실로, 아래층은 좌선 수행을 하거나 불교 의식을 행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매주 일요일 아침에는 가쇼도 1층에서 좌선 모임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일본어로 지도하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참가자와 스님은 바닥에 얇은 방석을 깔고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무릎을 끓기도 하며 조용히 명상을 합니다. 벽에는 참가 횟수가 많은 참가자의 이름이 적힌 나무 팻말이 걸려 있는데, 그중에는 50년 동안 계속 참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쇼도 정면의 탁 트인 내진(內陣)에는 2개의 조각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하나는 호코쿠지 절을 창건한 승려인 텐간 에코(1273~1335)가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한 매우 정교한 목조상입니다. 이 조각상은 표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목재가 아니라 점토를 사용하여 만든 듯한 인상을 줍니다. 1347년에 제작되었으며, 사원의 건물 대부분이 파괴되었던 1923년 관동대지진 속에서도 무사히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붉은색과 푸른색의 하늘거리는 가사를 두른 가섭존자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작품은 유명한 불사(佛師)인 다쿠마 호겐의 작품이었으나, 1800년에 소실되면서 현재는 복제품만이 남아 있습니다.

가쇼도 뒤편에 자리한 작은 정원은 승려인 텐간 에코가 설계했다고 전해집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모래와 돌로만 자연의 풍경을 묘사하는 가례산스이는 전형적인 선종 사원의 정원 양식입니다. 이외에도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연못과 작은 개울이 있으며, 그 주변을 여러 나무와 대나무 숲이 에워싸고 있습니다.